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대담=김나미 한신대 강사)

금강신문
2009-03-06

2009년 03월 06일 (금) 09:54:23 사진=이강식 기자, 정리=최동진 기자 ✉lks97@ggbn.co.kr, djchoi@ggbn.co.kr



▲ 전재성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 소통을 이끌 수 있다며 초기 경전 공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구분됐다. 대승불교가 동북아시아의 주류가 되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초기 경전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다. 20년 가까이 초기불교 경전 번역 작업을 해 온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을 만나 초기불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불교 경전, 문자로 기록되며 왜곡 발생 이전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에 눈뜰 때”

김나미(이하 김) : 지난해 《왕국따라니까야》 10권을 완역한 데 이어 کوت다까니까야 《법구경-담마파다》, 《생활 속의 명상수행》 등 지속적으로 초기경전 발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성(이하 전) : 머리도 식힐 겸 잠시 빠알리어 경전 번역을 쉬었다가 최근 들어 《우다나경(優陀那經)》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다나경》은 《자설경》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해탈 이후의 즐거움을 설한 경전입니다. 북전에는 《법구경》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남전에는 분리돼 있어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밖에도 초기불교 경전과 주석서에 나오는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들을 정리한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 : 빠알리대장경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펴내면서 초기경전 번역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불교를 접한 계기와 초기불교를 선택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전 : 사춘기 시절인 중학생 때 불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4 살 때 전신화상을 입은 탓에 방황을 많이 했는데, 불교를 접하고 바다에서 근원을 찾아 회귀하는 연어의 본능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불교에 귀의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였습니다. 취직도 어렵고, 외국 유학도 여의치 않아 한강변을 산책하던 도중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웃음) 1989 년부터 빠알리 경전 번역을 시작했는데, 독일 유학 시절 라인강변에서 우연찮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당시 들었던 초기경전인 《맛지마니까야》 1 권의 한 구절이 인생을 바꿔 놓은 것이죠. 적절한 운율성과 반복성 때문인지 큰 감동을 받았고, 이후 빠알리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김 : 우리가 초기경전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부처님 열반 후 한참이 지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외부의 것들을 많이 차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의 내용이나 뜻이 변질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전 : 빠알리니까야가 기록된 것을 기원전 50 년 내지 1 세기로 봅니다. 부처님 말씀을 100% 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외우기 쉽게 운율과 음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전승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문자로 기록되면서 동음이의어 표기가 잘못되는 등 왜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 초기경전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부처님 말씀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글로써 표기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하려다보니 현실에 적용하기 전에 모순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칼을 너무 갈아서 날이 오히려 무뎠진 격이죠.

김 : 그렇다면 그 왜곡된 것 중 대표적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처님 재세시와 2,500 년이라는 시간·공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탐·진·치 욕망이 강해짐에 따라 변질된 것들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기복문화와 육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글쎄요. 제가 과연 비교할만한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제기하신 내용 중 기복문화는 초기불교에서는 배제됐습니다. 당시 사원은 수행자들이 모여 부처님 설법을 듣고 토론하는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수행공간은 각자에 맞게 따로 위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공간이 된 사찰들은 승가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육식에 관해서는 탁발문화 때문에 허용됐다는 견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살생 계율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계율은 불교가 정립된 후 사회에 적응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계율은 오늘날 사회 변화에 맞춰 만들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초기불교가 왜곡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 :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사후세계, 즉 윤회가 일반인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대승불교와 초기경전의 죽음관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회는 초기 불교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회는 영혼·마음에 실체론적으로 접근하는 서양 철학과 같습니다. 사후를 영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체론적 관점에 따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재밌게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후세계를 실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영혼의 고무줄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섬유론’을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가느다란 실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상호 의존하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론, 연기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금생에서 내생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의식·영혼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행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실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김 :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안락사·존엄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혹시 초기불교에 이런 사안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까?

전 : 실제 초기 교단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콜레라 등 불치병이 걸려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용인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자칫 자살을 방관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정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말린 것을 보면 그런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열반이라 함은 탐·진·치 3 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즉 정신적으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는 경지까지 오른 사람 혹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오늘날과 비교할 때 안락사 같이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어렵지만, 본인의 의식이 명료할 때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존엄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초기경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전 : 초기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보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 어느 철학이나 학문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티끌 없는 유리알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초기경전을 공부하면 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보급이 많이 안 된 점이 아쉽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유명 작가 헤르만 헤세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 《데미안》에서 ‘줄탁(喙)의 비유’(새가 알을 까고 나온다)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것으로 《맛지마니까야》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결국 헤르만 헤세가 노이만이 1910년 번역한 초기경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사회적인 소통을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기경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김 : 끝으로 불교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 후학 양성계획이 있으신지요?

전 : 《앙굿따라니까야》에 ‘원래 우리 마음은 빛나는 것인데, 다가오는 번뇌로 인해 오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기복적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초기경전을 보면 자비심을 내는 한 방법으로 기도를 봅니다. 총체적으로 사찰들이 이런 내용들을 신도들에게 교육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됐으면 합니다. 후학 양성과 관련해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 번역을 마무리 한 후 니까야 보급 운동과 더불어 해볼 생각입니다.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8>